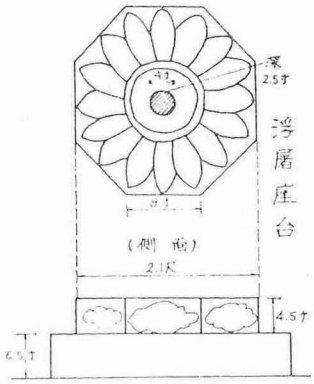
巨師最賢의 舍利壇部材

洪 思 俊

五月十五日 瑞山 三尊磨崖佛像前室工事場에서 하루를 消日하는 동안 寺址一帶에 或이나 三尊磨崖佛像이 彫出되던 百濟當時의 遺物이 흩어져 있지 않을까 하여 두루 살피어 보았으나 이렇다는 것이 發見되지 않았다。 印바위에서 개천을 건너 五十步 可量細路를 올라가는 左側에 李朝時代로 推定되는 座臺石이 있어 斜倒된 面을 보니 十八蓮瓣으로 中央에 半圓孔이 파있고 八角面에는 眼象이 彫、되어 있었다。(挿圖) 고란사(高蘭寺?)라는 寺址附近에서 굴러떨어진 듯하여 올라가 보니 寺址前方 自然岩으로된 편편한곳이 있고 北側에도 傾斜岩面이 있는데 二行의 楷書滿字가 아래와 같이 自然岩面에 있다。



「巨師最賢生舍利安壇
法師守滿 」

字形은 二寸이며 書體가 李朝時代것으로 推定되었다。 이 金石文과 굴러떠러진 浮屠臺石과를 볼적에 法師守漢이 巨師最賢의 舍利를 安置한 浮屠임을 알겠으며 李朝時代까지 寺院이 있던것을 알리고 있다。

慶州出土 蓮花鬼面의 新例

張 南 植

近者 慶州博物館에 蓮花鬼面片 二點이 入手된바 있는데 完全한 것이 아니고 缺損이 甚한 一部分片이나 그 形態가 特異함으로 紹介해 두고저 한다。

一、綠釉蓮花鬼面

慶州市 排盤里 出土라고 傳하는바 四天王寺址 附近이 아닌가 推測된다。 赤色粗質바탕에 煤黑色 釉藥을 발렀으며 下端에 濶瓣蓮花紋이 正半形으로 陽刻되었고 그위에 鬼面齒牙部下唇과 蓮珠紋이 있는 右周椽一部가 殘存하였다。 缺損이 甚하여 全體의 輪廓을 알 수 없으나 半形蓮瓣의 中心에서 下端이 平面으로 끝났으며 下唇部와 蓮瓣의 側面空間은 飛雲文으로 充塡하였고 下唇部 周邊에는 渦狀形으로 끝이 말린 수염(鬚)이 平行線을 이루고 外周椽側面에는 忍冬唐草紋이 流暢한 솜씨로 彫刻되었다

總高 一五㎝ 幅 一九㎝ 厚 五㎝ 蓮瓣徑 一二㎝

二、蓮花鬼面片

月城郡望德寺址 出土라 傳하며 灰白色의 堅質土製로서 上下 兩側面을 共히 缺하여 輪廓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前記 排盤里出土의 것과 거의 手法이 恰似함이 注目된다。 高 一六㎝ 幅 一五㎝ 厚 四㎝로서 鬼面下唇部 밑에 短彩濶瓣重葉蓮花가 亦是 半形으로 또렸하고 古側上部 一隅에 귀의 一部가 남아있으며 口邊齒牙가 比較的 高彫이다 口邊周圍의 끝이 말린 수염 等은 新羅末期의 鬼面 一般形에 屬한 것이라 하겠다。

前記 二例는 忠南扶餘郡窺岩面 出土 蓮座鬼形文塼(國博扶餘分館收藏)에서 鬼面의 裸形體軀만을 除外하고 面部밑에 蓮花를 半形으로 넣어서 下端끝을 맺은 것과 恰似한 것으로 興味있는 資料라 生覺된다。

考古美術 뉴ㅣ스

◉ 文化財委第一分委(第九次)

六月十八日 午後三時 文化財管理局 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席은 金庠基 金斗鍾 李相佰 金允基 金元龍委員外 河局長 文化財課 管理係長과 李浩官諸氏 및 金亘經敎授(石窟庵現況調査委員會委員)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